

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대 11조3000억...전남 22% 급증

올 10월까지 81억9000만 달러...지난해 동기 보다 8.9% 증가 쌀 가공식품·라면·과자류·음료 수출액 모두 역대 최대치 경신

쌀 가공식품과 라면, 과자, 음료 등 K-푸드가 전 세계에 인기를 끌고 전남도의 농수축산품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올해 10개월간 농식품 수출액이 11조2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올해 10개월간 농식품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8.9% 증가한 81억9000만 달러(약 11조2891억원)로 역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 증가세는 14개월째 이어졌다. 전남의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농수축산품 수출액은 5억7523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증가한 규모로, 김, 미역, 전복 등 수산물과 쌀, 배, 유자차 등 고품질 농수산물에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수출액 상위 품목인 쌀 가공식품과 라면, 과자류, 음료 등의 수출액이 모두 최대치를 경신했다.

냉동김밥과 즉석밥,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41.9% 증가한 2억5000만달러(약 3445억원)로 이미 작년 한 해 수출액(약 2993억원)을 넘어섰다.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55.9% 증가했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액은 지난 9월부터 냉동김밥이 수출 품목에 포함되면서 작년 동기보다 40.2%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수출이 늘어나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인 라면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10억2000만달러(1조4000억원)로, 지난해 동기보다 30.0%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 라면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미국과 중국을 넘어 유럽에서도 수입액이 늘고 있다. 신시장이인 중남미에 대한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70.9% 증가했다.

올해 과자류 수출액은 17.6% 늘어난 6억4000만 달러(약 8823억원)에 이르고, 음료 수출액은 15.8% 증가한 5억6000만달러(약 7719억원)로 집계됐다.

신선식품 수출액은 김치와 유자, 포도 등의 호조로 0.5% 늘었다. 김치 수출액은 1억3470만달러(약 1856억원)로 3.1% 늘었고, 유자와 포도는 각각 약 4830만달러(약 665억원), 3330만달러(약 459억원)로 2.3%, 24.0% 증가했다. 유자 수출액 증가는 캐나다와 필리핀 등 신규 시장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다. 전체 농식품 수출을 시장별로 보면 올해 1~10월 미국으로의 수출은 22.1% 증가한 13억1000만달러(약 1조8055억원)였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12억5만달러(약 1조6542억원)로 6.9% 증가했고 유럽으로의 수출은 5억6000만달러(약 7719억원)로 26.1% 늘었다. 아세안으로의 수출도 15억7000만달러(약 2조1639억원)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연합뉴스



올해 3분기까지 라면·과자·음료·쌀 가공식품 등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시민들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글로벌 으뜸기업', 글로벌 무대 도전 첫 발 뗐다

플러그앤플레이 개최 실리콘밸리 서밋 참가 6개사 발대식

전남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으뜸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남 글로벌 으뜸기업 55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는 가운데 5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사업 참가 기업의 실리콘밸리 서밋 발대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서밋은 플러그앤플레이 본사에서 개최된다. 전남 기업이 플러그앤플레이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 멘토링을 통해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서밋에는 해외 벤처투자자, IT 기업 및 파트너사 등 약 4천 명의 참가자가 함께해 참여 기업에 투자 유치와 함께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 글로벌 으뜸기업 6개사 대표와 세계적 창업기업 육성 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의 조용준 대표(한국 지사)가 참석했다. 전남 글로벌 으뜸기업은 ㈜휴먼아이티솔루션, ㈜에이비알, ㈜해신, 종은영농조합법인, 오앤오, ㈜슈니테크다.

행사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글로벌 서밋 참여를 위한 노력과 준비 과정을 공유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 2024에서 플러그앤플레이와 글로벌 벤처창업기업 육성 업무 협약을 하고, 이에 따라

전남 글로벌 으뜸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서밋에 참여하는 6개 기업을 포함한 14개사는 지난 3개월간 실리콘밸리 전문가 1대1 멘토링, 영문 IR 피칭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에서 해외시장 진출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서밋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참여 기업이 많은 투자를 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지역에서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세계 최고의 멘토링과 강력한 네트워킹을 자랑하는 플러그앤플레이가 적극 노력해줄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수요조사

13일까지...농산업 수출 기업 대상

으로 추진하는 2025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농산업 분야 수출(예정)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농산업 분야 스마트 제조공장 솔루션을 구축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당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국비 2억원과 기업 부담금 2억원으로, 전국적으로 약 10~15개 기업(잠정)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종자, 농약, 동물용 의약품, 펫푸드 등 농산업 분야의 중소

·중견 제조기업으로, 수출을 이미 하고 있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을 통해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중간 수준의 스마트 솔루션과 연동 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인허가 취득, 마케팅, 해외 박람회,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수출정책 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농산업 분야 제조기업은 오는 13일까지 소재지 사·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와 스마트공장의 정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누리집(www.smart-factor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금호타이어,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마쇼' 참가

세계 최대 규모 자동차 부품 박람회...2025년 출시 신제품 등 전시



금호타이어가 오는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세마쇼(SEMA Show 2024)'에 참가한다. <사진> 세마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박람회로 타이어, 휠, 배터리를 비롯한 전 세계 자동차 튜닝 부품 제조사가 참가한다. 올해는 2400여개의 전시 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전시에서 '타협 없는 퍼포먼스(Performance without Compromise)'를 컨셉으로 기존 인기 제품과 2025년 출시될 신제품 엑스타 PS71, 엑스타 PS72, 로드벤처 RT51 제품을 전시한다.

금호타이어는 특히 오프로드용 신제품을 소개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며 이밖에도 솔루션 TA91 EV, 크루젠 HP71 EV 등 전기차용 타이어와 소형 트럭용 로드벤처 시리즈도 전시한다.

제품 전시와 함께 금호타이어가 후원하고 있는 포물러 드리프트 선수 제프 존스, 앤디 헤이틀리의 사인회 및 이벤트를 제공한다.

한편, 북미 시장은 금호타이어의 해외 진출 지역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곳으로 2023년 기준, 1조 261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니트 스웨터로 추위 대비하세요" 5일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 플래그 스텝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매장서 직원들이 니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는 급격히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 다양한 니트 제품들을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위니아, 롯데하이마트와 '담채' 판매 총력전

㈜위니아는 5일 '롯데하이마트와 '담채' 판매 총력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기간 담채 스탠드형 418L(모델명 WDT42 JRPIMP)와 뚜껑형 220L(모델명 GDL22 KGSTE)를 특가에 구입 할 수 있으며, 11월11일까지 담채 스탠드형 467L 구입(해당모델 GDQ48 JPLISS)과 함께 믹서기를 동시 구매 할 경우 해당 제품을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위니아 전문 판매점인 '위니아담채스테이'에서

는 11월, 담채 스탠드형 551L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위니아 155L 냉동고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며 냉장고와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중소형 가전도 할인 판매한다.

담채 스탠드형 모델의 경우 담채 고메팬트리가 탑재돼 있어 평소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식재료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음료 및 주류 등을 편리하게 수납 가능한 고메포켓 구조도 탑재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00호점 서림지역아동센터 선정

시설·학습환경 개선 등 지원

광주은행은 5일 "최근 광주시 북구 임동에 있는 서림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00호점 선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선정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은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은 광주은행이 지난 2015년부터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역 내 아동센터 및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쾌적한 학습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광주은행은 올해 해당 사업에 4억 3000만원가량의 예산을 투자해, 광주·전남지역 아동센터 45개소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지원했다.

이번에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00호점으로 선정된 서림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습지도 및 인성교육, 특별활동 등을 진행하는 시설로, 현재 20여명의 아동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해당 센터는 노후화된 창문 시설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단열이 어려운 문제 때문



에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광주은행은 외부 창문을 모두 교체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위한 책상, 의자 등을 선물하는 등 학습환경 조성을 지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예타 선정 환영"

건설협회전라남도회 성명

대한건설협회전라남도회는 5일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전남·북 간 이동 시간을 단축 시켜 호남권은 물론 수도권과 남해안 간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 증가 및 물류 수송 거리 단축으로 전남 동부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재 대한건설협회전라남도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건설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며 "아울러 '영암-광주' 간 47km 구간 초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을 또한 조속히 추진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76.88 (-12.09)
↓ 코스닥	751.81 (-2.27)
↓ 금리(국고채 3년)	2.918 (-0.017)
↑ 환율(USD)	1378.30 (+7.40)